

애니메이션 콘텐츠 분석을 통한 문화원형 표현 연구 - 켈스의 비밀을 중심으로 -

김예은¹, 이태훈^{2*}

¹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석사 과정, ²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A Study on the Method of Cultural Preserv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nimation Contents -Focusing on Animation film "The Secret of Kells (2009)"-

Kim-ye Eun¹, Lee-Tae Hoon^{2*}

¹Student, Digital Contents, KyungHee University

²Professor, Digital Contents, KyungHee University

요약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과거의 사건과 위인에 대해 의미와 교훈 등을 부여하며 계몽 및 민족적 정체성을 각인케 하는 작품은 이상적인 예술 영화 콘텐츠 중 하나의 특징이다. 애니메이션 <켈스의 비밀>은 실존하는 문화원형, '켈스의 서'가 제작된 당시의 상황과 역사, 켈트족의 신화 등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미디어로 재현하면서 다양한 조형적 방법을 통해 문화원형을 관객에게 어필한 작품이다.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영화 <켈스의 비밀>에서 보여주는 켈트족의 역사, 전통 문양과 조형적 상징성을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한 자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의미표현을 연구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영화 <켈스의 비밀>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고유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역사에 대한 계몽 및 교훈 등의 예술적 가치를 띤 대중예술로서의 이상적인 가치표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예술 콘텐츠, 전통문화, 조형적 표현기법, 작가주의 스타일, 켈스의 서

Abstract Works engraving enlightenment and ethnic identity by giving meaning and lesson to past events and great people against the past can be one of the good ideal art film contents. The animation <Kells' Secret> reproduces the existing cultural archetypes, situation and history, when the 'Book of Kells' was produced, and the myths of the Kelts tribes. This thesis analyzes the history the kelts, traditional patterns and formative symbolism shown in <Kells' Secret>, and studies the cultural preservation method unique to animation contents. In conclusion, the movie <Kells' Secret> not only suggests a methodology that animation content is an effective way to preserve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native people, but also pursues the eternal, enlightening and teaching people for history.

Key Words : Art contents, traditional culture, formative expression techniques, authorism style, Book of Kells'

*Corresponding Author : Tae Hoon Lee(thlee1401@empas.com)

Received September 4, 2020

Revised October 16,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1.1 서론

태생 자체가 소모성 콘텐츠로 그 수명이 비교적 매우 짧은 상업 영화와는 달리, 예술 영화 콘텐츠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의 예로서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영화화하여 관객들에게 과거의 사건들과 위인들에 대해 의미와 교훈 등을 부여하는 등 계몽 및 교육의 효과 등이 창출되기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1987:When the Day comes(2017)>를 예로 들어보면 역사가 그저 박제되어 잊히는 것이 아닌 현대인들과 영화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사실들이 새로운 의미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사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포카혼타스(1995)>, <물란(1998)>Fig. 1등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과거 잊힌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배경과 캐릭터 설정에 녹여냄으로써 접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포카혼타스>은 1600년대 초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면서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 실화를 미화한 작품이며, <물란>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고유의 복장이나 문양, 용과 같은 캐릭터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영화 <켈스의 비밀(2009)>에서 보여주는 켈트족의 역사, 전통 문양과 조형적 상징성을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콘텐츠만의 문화적 보존 방법을 연구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자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의미를 전파하는 효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 1. The poster <Pocahontas>, <Mulan>

1.1.1 켈트의 역사와 문화

켈트족은 BC 500년경 역사기록에 등장한 소수민족으로 유럽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다. 로마를 끊임없이 약탈하기도 했으며 전성기에는 이탈리아 북부나 동유럽 등 유럽 전역에 분포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집트까지 침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C 1세기 말 야만족을 막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통합되어 세력이 커지고 켈트족들의 거주지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브리타니아 섬과 에린(아일랜드)섬으로 이주한 켈트족만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켈트족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인공적인 신전을 짓기 보다는 자연적인 장소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켈트족이 믿는 신들은 대자연의 힘을 상징화하여 인간의 형상을 띄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의 유럽의 요정 이야기들이 바로 이 켈트족의 신화를 변형하여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켈트의 신화적 특징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신들이 다른 문화에 비교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점에 있다. <켈스의 비밀> 속에 등장하는 흰 늑대 '아이슬링'과 톰 무어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바다의 노래>에서 볼 수 있는 부엉이 마녀 '마하',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막리르'를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Fig. 2]. 아이슬링은 인간에게 공격적인 검은 늑대들을 조종하고 무너지는 거대한 돌덩이를 홀로 지탱하는 등 신의 권능을 보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숲속을 뛰어놀고 주인공 브랜드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마하는 신의 권능으로 아들 막리르를 돌로 만들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요정들의 감정들을 유리병에 가둬버리나 결국은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결정이었음이 암시되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난다. 켈트족의 자연 중심 신앙에 상상력을 덧입혀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표현하면서 감독은 켈트족 고유의 신화를 작품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였다[1]. <켈스의 비밀>은 실제 존재하는 문화원형, '켈스의 서'가 제작된 당시의 상황과 역사, 켈트족의 신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미디어로 재현하면서 관객과 상호 매체적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전통 문양, 대조되는 캐릭터 등으로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원형을 관객에게 어필한 것이다[2].

1.1.2 조형적 특징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조형심리학 이론 '게슈탈트 이론' 중 구조주의에 의하면 부분은 서로가 관계를 맺어 고유한 특징을 가짐으로 전체보다 부분이 힘이 있다고 한



Fig. 2. Character of <Aisling>, <Maha>

다. 즉 화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형적 특징이나 색감과 같은 부분적인 시각적 요소들로 관객에게 주제를 부각하고 한 눈에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이는 화면의 구도와 위치로 표현된 상징적 의미와 의도적으로 강조된 조형적 요소로 관객에게 감독이 원하는 바와 목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밝은 색감의 인물들 사이에 단 한 인물만이 검은색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객은 검은색의 인물을 악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켈트의 비밀> 속 캐릭터들은 각 성격에 맞는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선과 악의 대비를 색감으로 표현한 등, 화면 속 다양한 조형적인 요소 등으로 대칭과 균형을 창출하며 관객들의 사고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론

2.1 예술적인 표현기법 분석

영화 <켈트의 비밀>을 보면 보편적인 2D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다른 평면적 배경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나 사물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조형요소까지 원근법에 따른 공간감의 표현 없이 일차원적이게 보이는 것이다. 거리감은 오로지 사물의 크기만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표현했을 뿐이다[Fig. 3]. 멀리서 보는 마을의 군집뿐만 아니라 개인의 방과 같은 좁은 공간도 펼쳐진 방식이 적

용되는데, 벽과 창문은 위로 솟은 것이 아닌 둥그렇게 모여 일하는 사람들을 감싸는 모양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한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타 작품과 차별적인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처럼 톰 무어 감독만의 독특한 조형적 표현양식은 그 민족만의 고유 정체성과 역사적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4].



Fig. 3. The image of Planar technique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평면적 표현기법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켈트족의 독특한 전통 문양들을 화면 가득 배치해놓았기 때문이다. 섬세하고 기하학적인 이 전통문양들은 신성적 특징인 자연주의적 사실표현기법에 의해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 나란히 배열되어 소용돌이 문양, 계단 문양, 만자 문양, 매듭 문양, 동물 문양 등으로 나뉜다. 끝없이 이어지거나 서로 꼬여있는 문양들은 영속적인 켈트족의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토착적 장식요소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미술에 동화되었다. 예를 들어, [Fig. 3]의 두 번째 이미지를 살펴보면 기록장의 배경 주위를 하얀 실타래 같은 것들이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느다란 하얀 실선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뭉치면서도 같은 문양이 없으며 끝없이 이어지면서 테두리를 둘러싸며 극 중 주인공인 브랜단의 상상 속 이미지임을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5]. 극 중 전통 문양들은 고대 켈트족 생활에 깃들어진 상징적 의

미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화면을 장식하는 역할뿐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특정 위치나 대상에게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특히 영화<켈스의 비밀>에서는 대표적인 그들만의 문양적 특성을 드러내는 장소와 사물이 존재하는데 자연을 보여주는 숲과 눈, 켈트족의 전설 ‘크롬 크루아크’,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 보존 가치를 가진 ‘켈스의 서’ 등이다. 책을 쓰는 작업에 필요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세워진 벽을 넘어 숲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나무들은 곧게 자라난 나뭇가지가 없이 대부분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고사리나 소용돌이 문양 등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연을 상징하기 위해서다. 켈트족이 본래 자연적인 공간 속에서 신앙을 키운 것처럼 숲의 한가운데 허물어진 신전의 터가 존재했기에 인간에 의해 세워진 벽과는 반대의 색감을 띄게 표현하고 있다. 고서인 ‘켈스의 서’에는 빈틈없이 뺨뺨한 문양들과 그림이 들어차 텍스트를 장식하면서도 강조하고 각 복음서의 도입부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성상화가 채색 되어있다. 바이킹들이 켈스를 침략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색감과 대비되게 하얀 눈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닌 켈트족의 문양과 동화된 독특한 기독교 문양을 띄고 있음으로써, 교회에 대피한 사람들만이 겨우 살아남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감독은 평면적 애니메이션 작품에 전체적으로 켈트족의 전통 문양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관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켈트족의 고대 이야기와 그들의 시대적 환경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7].

Table 1. The technique of authorism

	technique	traditional culture
material	thin hank	brendan's imagination
shape	roundy branches	God's territory
color	contrasty color	their own God
form	white snow symbol	Christianity

2.2 캐릭터의 색채 및 조형적 상징성 분석

툼 무어 감독은 화면의 색채 배합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상징 혹은 도상을 추리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즉, 애니메이션의 색채는 캐릭터의 심리적 변화나 상황을 암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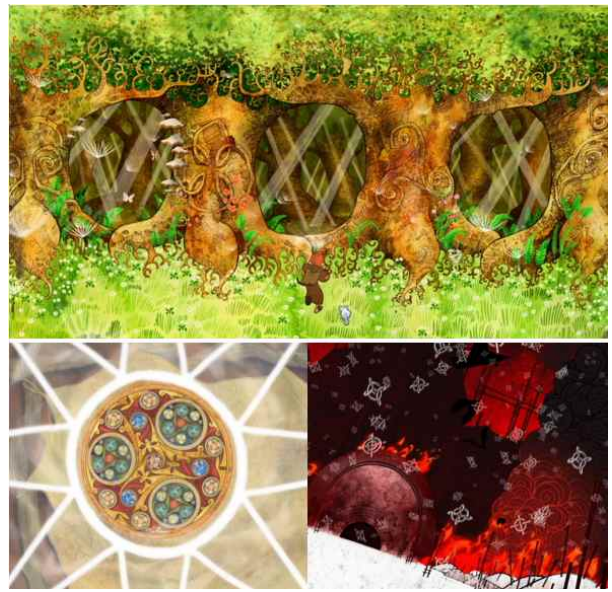


Fig. 4. A stylistic characteristic in the nature

는 영상매체 속 의미작용의 시각적 요소라는 것이다[9]. 동그란 모형에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각진 모형에는 긴장과 차가움을 보편적이게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시각기호와 패턴을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10].

영화<켈스의 비밀>의 주인공 브랜단 Fig. 5은 전체적으로 동그란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켈트족 고유의 붉은 머리와 흰 피부를 지니게 함으로써 켈트족을 대표하게 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섬세한 손기술을 갖고 있어 고대 복음서인 ‘켈스의 서’를 직접 제작하게 한다. 후반에 성장한 외형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예수의 형태를 보이며 직접적으로 ‘켈스의 서’ 그림 속에 그 얼굴을 등장시킴으로써 켈트족의 기독교적 신념을 드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단의 삼촌, 켈라 수사는 외부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복음서를 제작하는 것보다 인공적인 벽을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물이다. 그가 ‘켈스의 서’를 쓰려는 주인공 브랜단을 직접 막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머리와 푸른 눈, 흰 피부와 같은 색감으로 표현하고 단지 각진 조형적 특징으로만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신적 존재를 상징하는 동그란 조형과는 반대의 형태로 신앙과 복음서를 통해서가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외적과 문제를 이겨내려는 켈라 수사의 고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극 중 인물인 에이단 수사는 책을 적는 자들에게 꿈의 성지처럼 여겨졌던 섬, 아이오나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인물로 복음서를 제 목숨처럼 지켜내는 인물

이다. 전체적으로 흰 색감을 가져 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게 만들며 삼촌에게 억눌리고 있던 브랜단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복음서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북반부의 침략자인 바이킹은 영상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들보다 채도가 낮은 어두운색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들이 야기시키는 피와 마을을 파괴하는 불만을 상징하는 진한 붉은색을 띠고 있다[Fig. 5]. 전체적으로 동그란 켈트족의 캐릭터들과는 반대로 직각의 조형적 특성을 가져 공격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느껴진다. 그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관객의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기 위해 위압적이고 비대칭적인 구도를 배치하고 있다. 관객의 관심을 화면 속에 강렬한 대조로 유도하여 바이킹은 철저한 악, 그들에게 당하는 켈트족은 약자라는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11].



Fig. 5. Case of contrast between colour and form

고양이 판거판과 켈트족의 전설적인 존재 ‘아이슬링’[Fig. 6]는 선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듯 전체적으로 흰색을 갖고 있다. 판거 판의 꼬리는 말려있는 소용돌이무늬로 켈트족의 자연을 숭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후에 브랜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령처럼 변해 도우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양이임에도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는 것 같은 모습과 수사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에이단 수사와 함께 다님으로써 종교적으로 신성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켈트족 신화적 특징으로 신이 고귀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간적이라는 것을 아이슬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브랜단과 같이 작은 키에 함께 어울려 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그녀를 친근한 존재로 여기도록 돕는다. 그러나 인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검은 늑대들의 위협을 무르게 하고 아이의 악력으로

는 버틸 수 없을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 올리며 종종 하얀 늑대로 변화해 브랜단을 도우면서 그녀의 선한 역할을 돋보인다.

검은 늑대들은 붉은 눈을 갖고 각진 형태를 가짐으로써 한눈에 보기에 몹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Fig. 6].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브랜단에게 호의적인 아이슬링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과 신적 존재인 아이슬링의 명령만을 받아들여 아이슬링의 초자연적인 존재성을 부각한다. 검은 늑대들은 숲에 들어온 인간이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 상관없이 위협하는 것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 없어 인간을 데려가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특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색채는 타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감독 본연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그 속에는 켈트의 전통 문양과 그들이 즐겨 썼던 색감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단순히 관객에게 시각적으로 적과 아군의 대비, 캐릭터의 성격을 밝힐 뿐만 아니라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인식시킨다[12]. 더불어 복잡하지 않은 조형적 화면 구성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13].



Fig. 6. The diving being white, the natural and the threat black

Table 2. Analysis character's color & symbolism

character	expression	meaning
Viking	angular	invader
	low saturation deep red color	inhuman
	overpower dissymmetry	absolute evil
cat	whirling pattern	Kelt's respect nature

2.3 영화 <켈스의 비밀>의 조형분석

로마의 침공을 피해 아이오나 섬에 피신해있던 켈트족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앵글로색슨족에 의해 유럽 대륙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섬에서 그들은만

의 독특한 그리스도교 문화가 탄생했다. ‘켈스의 서’는 9세기 초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지방의 수도승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성경의 4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예술적인 삽화를 담은 책이다. Fig. 7은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사본으로 불리는 ‘켈스의 서’는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켈트족 고유의 매듭 문양과 신성시하는 동물의 형상을 엮어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 낸 등, 섬세한 문양과 색감, 장식에서 켈트 민족문화의 특징을 볼 수 있다.



Fig. 7. A scene missionary work through <book of kells>



Fig. 8. A scene of description of <Book of Kells>

오랜 시간이 흘러 색이 변색한 ‘켈스의 서’원 본의 작

품과 동일하게 재현했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방금 막 완성한 것처럼 찬란한 느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켈스의 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보다 그 안에 섬세하게 묘사된 동물들과 무늬들의 엮인 모양새가 더 경이로운데,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의에 걸맞게 이 모든 것들을 확대하고 생생한 움직임을 줌으로써 ‘켈스의 서’를 처음 보는 이들에게조차 경외심이 들도록 연출하였다[14], Fig. 8과 같이 그저 유물을 복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니메이션만의 스타일과 표현기법으로 문양들의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영화 ‘켈스의 서’를 재탄생 시킨 것이다[15].

3. 결론

영화 ‘켈스의 비밀’ 마지막에 톰 무어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완성된 복음서를 귀중하게 쓰며 ‘아이오나의 서’라고 중얼거리는 삼촌을 대신해 책을 직접 쓴 브랜단이 ‘켈스의 서’라고 답하는 것이다. 이는 켈트족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유럽 전역뿐 아니라 이집트까지 뻗어갔던 켈트족이 한순간 분열하고 사라지며 결국 아이오나라는 작은 섬에까지 몰리게 되었으나, 그들의 뿌리는 아이오나가 아닌 켈스 즉 켈트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켈스와 켈트는 다른 단어지만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듯 둘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이처럼 감독은 켈트족의 역사와 뿌리를 환기하며 ‘세상에 책이 사라지면 모든 지식이 영원히 사라질 거야.’ ‘사람에게는 책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희망이 있죠.’와 같은 대사들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책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결국 켈트족은 소수민족이 되고 그들은 잊혀갔지만, 그들이 남긴 ‘켈스의 서’가 보존되고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톰 무어 감독은 애니메이션 콘텐츠인 <켈스의 비밀>에 사용한 전통문양과 다양한 표현기법, 그리고 작가주의적인 스타일의 화풍을 통해 문화재 ‘켈스의 서’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표현하며 한순간의 유희가 아닌 영속적인 예술작품으로 구현, 민족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캐릭터 고유의 색감과 조형적 특징, 켈트족의 전통 문양들을 화면 속에 반복, 등장시켜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켈스의 서와 켈

트 민족에 대한 실존적 관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를 통해 켈트의 역사를 궁금하게 하려는 톰 무어 감독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화<켈트의 비밀>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고유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대중에 대해 역사에 대한 계몽 및 교훈 등의 예술적 가치를 띤 대중예술로서의 이상적인 가치표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 A. Kim. (2007). Totemism expressed in Animation - focused on Animation The Boy Who wanted To Be A Bear, *Journal of Digital design*, 7(2), 43-53.
- [2] Y. S. Lim. (2020).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of Foreign Cultural Originality in Disney 3D Animation,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6, 31-50.
- [3] W. J. Lim. (2007). Analysis by formative feature and direction : Focusing on animation The Incredibles,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3(2), 262-282.
- [4] J. W. Kim. (2009). The study about historical style of animation : Focused on the individual style and USAs style & Japans style,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16, 49-65.
- [5] J. Y. Kim. (2008). A Study on the code and design elements as a way of transition,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14, 83-99.
- [6] S. T. Shin & H. J. Lee. (2001). A study on the visual expression of Korean style character design through the visual analysis on traditional magic patter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4(3), 135-144.
- [7] H. J. Joe. (2016). A Study of Traditional Pattern in Animation - focusing on Toom Moore" s Song of Sea and SKahli IGibran"s The Prophet: On Love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43) 185-209.
- [8] J. S. Jin. (2006). The Psychological Meaning Delivery of The Color which was Applied to Anim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6(11), 145-153.
- [9] H. C. Yoon. (2011). A Study on the Symbolism of Colors and Patterns - Focused on the Vengeance Trilogy,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20, 1-10.
- [10] J. S. Cho. (2004). Study for Animation Symbol & Metaphor as Visual Culture, *Collection of dissertation from the General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Creative Content Association*, 2(2), 134-138.
- [11] K. W. Kim. (2006). Comparative Study on Color Style between <Mulan>and <Lion K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6(11), 161-171.
- [12] X. S. Zhang & D. H. Choi (2020). Color Analysis of the Skeleton images in Animation - Focused on Coco,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59, 155-175.
- [13] S. H. Kim & J. W. Kim. (2018). A Study on the Formative Analysis of the Animation Screen Compositions according to the narrative-Focused on the screen composition of the <Kung Fu Panda 3>,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53, 107-126.
- [14] Y. H. Cho & H. J. Park. (2009). A Study on Interactional Relateness between Figurative Qualities in Animation and Expression Techniques in Fine Art For the Sake of Contemporary Art and Europe Animation,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5(2), 108-123.
- [15] H. F. Xu, K. J. Ryu & S. H. Park (2020). The character in the Chinese animation <My Red Whal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morphological factor analysis study,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59, 313-340.

김 예 은 (Ye Eun Kim)

[학사학위]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미술학사-디지털콘텐츠)
- 2019년 2월 : 경희대학원(미술석사 재학 중-디지털콘텐츠)
- 2019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일반대학원 연구실 재직
- 관심분야 : 표현 장르,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 E-Mail : kyy1462@khu.ac.kr

이 태 훈 (Tae Hoon Lee)

[장학위]



- 200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 임용
- 관심분야 : 영화
- E-Mail : thlee1401@empas.com